

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경상남도 산청군
- 화계지역아동센터



2018. 8

사실 방학 이전에 학기 중 기획단 활동부터 해오면서 봉사단 활동에 대한 기대, 걱정, 약간의 지침과 피곤함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버스에 타고 출발하였다. 그러나 도착하고 아이들을 만나니 생각이 단순해지고 오로지 활동 진행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남았다. 이번 봉사는 국영수와 같이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 뜻 깊었다.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아이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 기뻐다.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명에게 치우치지 않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,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나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항상 적당히 긴장했던 것 같다. 이번 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많이 웃으면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고 나 자신도 성숙해진 것이 느껴진다. 마지막으로 봉사단을 하면서 센터에서 잠을 잤는데, 봉사단원들과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져서 놀랐고 행복했다. 여러모로 내게 가지각색의 감정과 추억을 안겨준 이화봉사단이었다.

박*은

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.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, 같이 밥을 먹고, 이야기를 하면서 교감할 수 있었고, 그러한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. 자존감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느꼈고, 프로그램이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됨을 느꼈다. 순수한 아이들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다. 또한 함께 한 이화봉사단 단원들과의 교류도 좋았다. 타과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고,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. 저녁을 먹고 간단한 일과 정리와 담소를 나누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행복했다. 아동센터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점 없도록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했다.

김*현

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만큼 아이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, 아직 때 타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나는 그동안 작은 행복을 놓치거나 꿈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. 아이들과 며칠간 함께 하며 내 진로 또한 명확해졌다.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교사와 잘 맞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. 또, 교육의 기회가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, 예비 교사로서 내가 이를 위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되었다. 5일간 함께 지낸 단원들과의 시간도 소중했다.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같은 학교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. 또한 이화봉사단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했다는 점에서 기뻐으며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했다. 다음 학기에도 이화봉사단에 참여하여 또 다른 좋은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.

임*호

다양한 과의 단원들을 만나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재미있었다. 흔치 않은 기회라고 느꼈다. 또 교육봉사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적응하기 편했고 너무 고마웠다.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나누고 협력하는 마음을 배웠다.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 보여서 안타까웠고 그런 면에서 봉사단이 할 역할을 더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.